

하늘과 땅 위에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중강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②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불자 신행

고, 붓다 시대에 상당히 보편화 됐으며, 인도에 흠여진 이야기를 다 채록했습니다. 500<자타카> 혹은 550<자타카>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이라는 이름으로 동국역경원에서 발행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본으로는 빠알리<자타카> 이후에 흥미로운 것만 모아 묶은 <아바다나나(Avadana)>가 있습니다. 붓다의 일생담은 상당히 같고 닮아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각색이 되었고, 아름답게 좋은 은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전을 불전문학으로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소설을 쓸 때 복선이 있듯이 성인탄(聖言勳)이라고 하지요. 해석이 가능할 때는 그 뜻을 다시 생각하며 경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붓다의 탄생과 위신력이 다양하게 비춰집니다.



침이 담겨있습니다. 불교의 두 가지 목표인 깨달음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브라마 단인인 아시타 선인이 붓다의 탄생을 알고 직접 뵈고자 합니다. 아시타가 태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태자의 발에 정례를 합니다. 미간에 연꽃합장을 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제3의 눈(卍라카)에 경례합니다. 처음으로 붓다의 생애를 예언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고 학습기가 지나 궁중 생활을 하던 태자는 아버지인 국왕을 따라 파경을 하는 농경제에 참석합니다. 염부수 나무 아래에서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고 삶의 고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초선에 드시니 염부수나무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듯 염부수 세계에서의 세속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야부인이 룸비니에서 잡은 나무도 무우수 나뭇가지입니다. 후에 성도하실 때에는 보리수나무에서 정각을 이룹니다. 농경제에서의 초선이 의미하는 바는 붓다가 지닌 선천적인 능력의 확인입니다. 아쇼다라 공주와의 결혼 그리고 아들 라훌라의

붓다의 탄생계 불교의 자비와 깨우침 담겨있어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각색된 붓다의 일생담

붓다를 받고, 땅에 내리셔서 동서남북으로 '7보'를 걸습니다. 그 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른 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켜 천지수인을 합니다. 인도력으로 웨사크달인 4월 보름입니다. 인도의 자이나에서도 그렇고 성인은 대부분 웨사크달에 탄생합니다. 인도의 시간관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갓난아이가 옆구리로 태어나 울지 않고 스스로 걸어 나아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걸음과 고향이 지닌 문화적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뻗탄생이란, 인도에서의 4성계급과 관련 있습니다. 브라흐만은 머리 크샤트리아는 옆구리 베이스는 다리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난다는 상징적 비유입니다. 붓다는 크샤트리아 왕족이었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불교에서 '6'이라는 범수가 지닌 상징성은 다양합니다. 붓다의 일곱 걸음은 윤회의 세계를 벗어남의 상징이자 붓다 일생의 복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편안케 한 성인의 탄생 이야기가 문학적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진흙 속에 살더라도 깨달음을 성취하여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한 지혜를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붓다의 탄생계에는 불교의 자비와 모든 깨우

의 탄생은 태자의 출가 결심을 굳힙니다. '모두가 무덤이요. 온갖 모양이 마치 허깨비와 같고 꿈과 같구나.' 태자는 시종 찬다카를 불러 말 잔다카를 타고 말합니다. '모두가 공(空)으로 돌아가게 버려져서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고타마 붓다의 위대한 출가는 2천600여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도 전 세계의 구도자들이 인도로 향하게 하는 나침표가 됩니다. 인간적인 붓다의 생애는 진실함으로 다가옵니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길에서 다섯 제자와 더불어 설법을 하시고, 마지마마저도 귀향하지 못하시고 길에서 돌아가신 고타마붓다. 붓다께서 남기신 말씀의 상징성을 교리적인 입장에서 맞추고 나면 우리의 가장 깊은 인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생명력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간적 문제가 불교의 종교적, 본질적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 윤회으로 남기신 '자등명' '법등명'은 분명히 드러냅니다. '유아독존'의 의미를 냉정하리만큼 강조합니다. 결국 종교는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나와 세계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 먼저 그 길을 가신 인간 붓다인 것입니다.

글=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박재환 기자 jwpark@buddhapia.com



강사: 권기현(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교수)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일시: 2008년 4월 2일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과연 우리는 붓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불타관(佛陀觀)의 문제입니다. 붓다는 최고의 인격적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문제와 주관과 객관, 나와 세상의 관계를 문제 삼아 보십시오. 불교는 하나라고도 하지 않고, 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아드바이타(Advaita)' 개념으로 '不二'입니다. 불과 물이 섞이는 관념의 세계와 같습니다. 둘도 하나도 아닌 세계를 응수보살(Ngjunna)은 <팔부중도(八不中道)>에서 연기(緣起)와 공(空)의 관계로 해명했지요.

저는 문화해석학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풀고자 합니다.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는 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고의 폭이 확장되고 반대되는 문화의 사고에 계속 노출될 때 큰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인도인의 사고 틀은 큰 생각의 틀까지도 없애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이즘(ism)이 아닙니다. 붓다와자나(붓다의 말씀), 붓다데사나(붓다의 가르침)로 불교인 것입니다. 이런 인도문화 속에서 붓다의 탄생은 가능했습니다.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기의 서술 방식은 조상의 가계족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윤회사상에 입각해 나 자신의 전생이야기가 가계사보다 앞섭니다. 인도에서는 부자집의 문지기로서 땀 흘리며 일해도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전생의 업을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열심히 땀 흘려 살면 내생에는 오늘의 선업으로 과보를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문화의 혼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인도는 원용적 사고의 다양성과 오랜 시간의 믿음 체계를 지녔기 때문에 사회 지변으로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로 접근하는 방법도 이러합니다. 인도에서 전생이란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전생이야기는 <자타카(Jataka)>라고 하여 총 574개가 있습니다. 붓다 생전부터 이어져 내려왔



Tip 부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번 대중강좌는 3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 및 접수: 불교인재개발원 (02)735-2428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 담보내용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물질손해확장담보	교통상해
	풍수재해손해	구내치료비	간병비
	지진손해	주차장배상책임	질병시상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수술비용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건축물의 건축(중개축)년도 및 면적
-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형등석**: 형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 산 수입 물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일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현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장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인공사상공정수료
- 대한평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장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독교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인터넷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